

테크노-파시즘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기술-주체의 윤리를 중심으로 —

황 지 영**

요약

일제 말기에 창작된 리얼리즘 소설들 속에는 이 시기를 ‘테크노-파시즘’으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주체들이 등장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특등의 대우를 받기 시작한 기술-주체들은 제국 일본의 기술관료들이 만들어낸 ‘신체제’와 ‘동아협동체론’, ‘대동아공영권’ 등의 담론을 수용하고, 기술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처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지원해야만 하는 현재의 시간 속에 갇힌다. 또한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개인적인 ‘욕망’을 소거한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실행한다. ‘테크노’와 친연성을 지닌 이들은 ‘파시즘’과 거리를 두는 듯 보였으나, 기술적 원리로 작동하는 ‘테크노-파시즘’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해방을 맞이한 후 새롭게 자주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자유롭고 열정적인 주체들 틈에서, 기능주의에 중점을 둔 기술-주체들의 윤리는 더 이상 문학 작품 속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질 수 없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1021633)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테크노-파시즘, 테크노크라시, 기술관료, 기술-주체, 기계적 윤리, 생산소설

목
차

1. 리얼리즘을 완성하는 n개의 능선
2. 테크노-파시즘과 기술관료의 구상력
3. 사회주의자의 죽음과 현재=전쟁에 갇힌 시간
4. 기술-주체의 욕망소거와 기술 '속' 인간
5. 전쟁의 종결과 기계적 윤리의 쇠퇴

1. 리얼리즘을 완성하는 n개의 능선

리얼리즘 문학론을 정초하려고 했던 김남천에 따르면, 문학은 생산관계 및 경제적인 토대의 변천에 따라 건설되는 의식과 관계 맺으면서 분화되었고, 철학 및 정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다.¹⁾ 그는 '정치'란 통제와 억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와 분리되지 않으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을 지향하였다.²⁾ 더불어 김남천은 일제 말기의 비참한 조선의 현실 속에서 조선 작가들이 자신을 '속물'의 하천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건전한 사실주의의 길을 완강히 걸어" 가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리얼리스트적 정신이 건전한 세계관"과 "두려움을 모르는 '나파툼

1) 김남천, 『문학의 본질』, 『조선중앙일보』, 1936.9.1~4.; 정호웅 편, 『김남천 전집2』, 박이정, 191-192면.

2) 김남천, 『최근 평단에서 느낀 바 몇 가지』, 『조선일보』, 1937.9.14.; 정호웅 편, 『김남천 전집2』, 박이정, 257-258면.

(奈巴崙)의 칼을 들고 현실생활의 혼란한 삼림”을 향해 나아갈 때, ‘향토적 미제레(비참)’와 ‘정치적 암흑’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³⁾ 건전한 사실주의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전한 사실주의의 길을 걸었던 작가들이 새롭게 창조해야 했던 사실주의 작품을 하나의 ‘산’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 하나의 산이 입체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 밑의 다양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중국에는 산의 정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능선들이 필요하다.⁴⁾⁵⁾ 구체적인 능선들로는 우선 당대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상황과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 그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 등 작품의 외부적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속의 시공간적 배경과 인물들 사이의 배치, 주인공의 외양과 세계관 등을 재현하는 방식 등 작품 내적인 요소들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리얼리즘 소설을 창작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작가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당대의 시대상에 대한 포착과 그것을 어떻게 언어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시대적인 사회적 현실이란 문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며, 문학이란 항상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생활을 통하여 인간을 그리는 것”⁶⁾이기 때문이

3) 김남천, 『건전한 사실주의(寫實主義)의 길-작가여 나파룬(奈巴崙)의 칼을 들라』, 『조선문단』, 1936.1.; 정호용 편, 『김남천 전집2』, 박이정, 149면.

4) 鶴飼哲, 『応答する力- 来るべき言葉たちへ』, 青土社, 2003, 240-247면.

하나의 세계를 ‘산’에 빗대고, 그것을 채우는 ‘능선’에 대한 사유는 우카이 사토시가 『응답하는 힘』에서 구로다 기오의 『시와 반시』를 분석할 때 사용한 방법을 전유한 것이다.

5) 이러한 논리는 이 능선 중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산’에 빗대어진 건전한 리얼리즘 작품이 오롯이 완성될 수 없음을 내포한다. 또한 한 작품을 리얼리즘적 성취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n개의 능선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채만식, 『시대를 배경하는 문학』, 『매일신보』, 1941.1.5., 10., 13~15.; 『채만식 전집 10』, 창작과비평사, 1989, 233면.

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포착한 세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체상을 설정하고 형식적 측면 등을 고민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리얼리즘 작가들의 책임의식 덕분에 일제 말기에도 불안과 절망으로 점철된 세계와 등지지 않으면서, 문학을 매개로 시대와 응전하려 했던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었다. 문학가들은 문학 작품, 특히 소설 속에서 이 시대의 특징을 최첨단의 기계들과 기계적 세계관을 매개로 하여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전쟁'에 기원을 둔 '전환기'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였다. 이 새로운 전형인 기술-주체는 당대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청년상이자, 문학 속에서는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기술-주체를 둘러싼 논의 속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대에 작가들은 기술-주체를 시대가 원하는 주체상으로 제시하였고, 독자들의 기대 지평도 작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후대의 평자들은 기술-주체를 비자발적 친일 협력자라며 비판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대와 후대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주체의 출현 배경이 되었던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제 말기에 제국 일본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거부하면서 파시즘의 길로 접어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일본의 파시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이었는지, 아니면 천황제 파시즘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파시즘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일제 말기에 보편화되었던 파시즘의 방식을 '테크노-파시즘'이라고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구적 의미

의 파시즘이나 일본의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 천황제 파시즘으로 이 시기를 규정할 경우, 식민지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논의에 응답한 것은 ‘친일 담론’ 속으로 회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기를 ‘테크노-파시즘’으로 규정하면 서구의 근대성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을 매개 삼아 그것을 넘어서는 작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식민지 지식인들의 딜레마를 목격할 수 있게 된다.

이 딜레마의 심층을 파고들기 위해 본고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발표된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들 중에서, 기술-주체가 등장하는 작품과 (과학) 기술과 관련된 생산 현장이 등장하는 글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사랑의 수족관』의 김광호나 『길우에서』의 K기사를 창조해낸 김남천의 글들을 위시하여, 1940년대 『춘추』에 실렸던 생산소설들과 당대의 테크노-파시즘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를 ‘파시즘’의 시대라고 할 때, 파시즘의 주체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거론된다.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양차 세계대전기에 이들 지역에서 나타난 특정한 정치체제와 운동을 주로 가리키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사회의 본성과 그 본성에 내재된 파괴적 잠재력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린다.⁸⁾ 그래서 파시즘에 대한 연구는 문학 연구⁹⁾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7) 김남천, 『길 우에서』, 『문장』, 1939.7.

——, 『사랑의 수족관』, 인문사, 1940. (『조선일보』, 1939.8.1.~1940.3.3.)

석인해, 『歸去來』, 『춘추』, 1943.6.

윤세중, 『白茂線』, 『인문평론』, 1940.11, 1941.1, 1941.3, 1941.4.

이복명, 『水原』, 『춘추』, 1942.7.

최인욱, 『뱃돼지와 木炭』, 『춘추』, 1942.12.

8) 전상숙, 『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동방학지』 제124집, 2004, 607-608면.

그러나 아직까지 일제 말기를 ‘테크노-파시즘’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제니스 미무라의 『제국의 기획』¹⁰⁾을 제외하면, Michael Adas¹¹⁾, Hiromi Mizuno¹²⁾, 빅터 코쉬만¹³⁾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이다. ‘동아협동체론’이나 ‘대동아공영권’ 담론을 기획한 사람들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관료가 된 후 테크노크라시를 주창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담론들이 구성되는 방식은 기능적인 조합의 형식, 다시 말해 제국 일본을 전체로 상정하고, 다른 민족들을 전체를 채우는 부분처럼 다룬다. 민족들 간의 조합을 상상할 때도 부분들의 합이 전체라는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다.

한편 일제 말기의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기술-주체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거시적 차원에 대한 연구와 미시적 차원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제신체제’나 ‘과학기술신체제’ 등 당대의 제도 및 통치 상황을 다루는 거시적 차원의 연구로는 차승기¹⁴⁾, 황호덕¹⁵⁾, 한민주¹⁶⁾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리

9)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김효신, 『한국 근대문학과 파시즘』, 국학자료원, 2009.

방민호 외, 『파시즘 미학의 본질』, 예옥, 2009.

이상경, 『일제 말기 파시즘에 맞선 혼의 기록』, 역락, 2009.

이현식, 『일제 파시즘체제하의 한국 근대문학비평』, 소명출판, 2006.

한민주, 『낭만의 테러 파시스트 문학과 유토피아적 충동』, 푸른사상, 2008.

10) 제니스 미무라, 박성진 역, 『제국의 기획』, 소명출판, 2015.

11) Michael Adas, 『The Science of Empire: Scientific Knowledge, Civilization, and Colonial Rule in India by Zaheer Baber』, *Technology and Culture*, Vol. 39 No.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12)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13) 빅터 코쉬만, 이종호 역, 『테크놀로지의 지배/ 지배의 테크놀로지』, 사카이 나오키 외, 이종호 외 역, 『총력전하의 삶과 제도 (1933~1955년)』, 소명출판, 2014.

14) 차승기, 『전시체제기 기술적 이성 비판』, 상허학회, 『상허학보』 23, 2008. 6.

고 작품 분석을 통해 일제 말기의 과학과 기술의 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차원 연구로는 소영현¹⁷⁾, 류수연¹⁸⁾, 정하늬¹⁹⁾, 황종연²⁰⁾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당대의 파시즘이 대중들을 흡입하는 힘은 실로 막강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그러면서 파시즘의 흡입력과 폭력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근대성과 파시즘이 공유했던 ‘기술’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기술-주체가 등장하는 작품을 분석할 예정이다. 그래서 ‘파시즘’에 ‘테크노’라는 속성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제들, 특히 기술-주체의 윤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해 보려 한다.

2. 테크노-파시즘과 기술관료의 구상력

일제 말기에 일본은 ‘세계사의 전환기’임을 강조하면서,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서 고도국방국가를 표방하고,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항

13-46면.

- 15) 황호덕, 『별레와 제국- 식민지말 문학의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 새물결, 2011.
- 16) 한민주, 『과학전의 시대, 총후여성과 인조의 상상력』,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Vol.42, 2012, 179-213면.
- 17) 소영현, 『전시체제의 욕망정치 : 경제불황과 전시호황 ‘사이’, ‘사이보그-되기’의 역설』, 한국 타이완 비교문화연구회, 『전쟁이라는 문턱 (총력전하 한국 타이완의 문화 구조)』, 그린비, 2010.
- 18) 류수연, 『기술자와 직업서사-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집, 2016, 157-179면.
- 19) 정하늬, 『‘신시대’ 과학기술-과학기술자의 표상- 이광수의 『사랑』과 이복명의 『빙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7집, 2016, 337-360면.
- 20) 황종연, 『기술 이성의 관념론』, 동악어문학회, 『동악어문학』 Vol.73, 2017.11, 9-55면.

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단결을 도모하는 담론들을 계속해서 생산했다. 이 시기에는 만성화된 물자난으로 원활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필품 및 원자재에 대한 대응품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한 엘리트들이 정치관료가 되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술관료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일제 말기에 이러한 변화들이 출현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은 1931년 9월에 있었던 '만주사변'이었다. 일본 관동군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의 철로를 폭파하여 만주를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이후 만주국이 건국되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신체제가 수립되면서 고도국방국가와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이라는 제국주의적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제국의 건설을 통해 아시아의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만주국 지도자들은 '최첨단 일본(ultramodern Japan)'이라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구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면서 급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와 파시즘의 결합을 갈망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가 통치하는 새로운 권위주의적 통치 모델'인 '테크노-파시즘'이 등장하였다. 테크노-파시즘은 우수한 과학기술과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 그리고 국민정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일본의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이 근대성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근대성은 단순히 기계의 도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기계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대량생산 라인과 대규모 기업, 복합 관료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나타났다. 과학기술적 합리성은 전문화와

통합화라는 이중과정을 통해 과학이 일상생활에 적용됨을 의미했다.²¹⁾

게다가 1938년에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케 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총력전체제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1941년 5월 28일에 “고도국방국가 완성의 근간인 과학기술의 국가총력전체제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신체제 확립 요강」이 결정되었고, 그 후 전시하의 과학 동원이 본격화되었다.²²⁾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기술관료들이 기획한 신체제 운동의 핵심이 ‘새로운 사회의 구상’인 것은 필연적이었다. 테크노-파시즘을 지향하는 이들이 자본 소유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유 사회’ 대신에 자신이 맡은 직업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직능 사회’로의 변화를 꾀한 것도 일면 타당해 보인다.²³⁾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 사회’적 특징을 포기하고 ‘직능 사회’로 넘어 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술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직능’ 역시 기술과 연결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일제 말기 소설에 등장하는 기술-주체들이 ‘직분의 윤리’에 침윤된 것을 테크노-파시즘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능과 연결되는 기술이라는 논의까지 오게 되면, 기술은 근대의 물질적 진보를 가져오는 수단이자 목적을 넘어, 인간의 주체성을 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된다.

21) 제니스 미무라(2015), 앞의 책, 7-22면.

22) 야마모토 요시타카, 임경화 역, 『나의 1960년대』, 돌베개, 2017, 185-195면.

23) 제니스 미무라(2015), 앞의 책, 248면.

직능의 관념은 본래 생산의 입장에서 생각되는 것이지만, 생산적 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술이다. 직능의 관념과 기술의 관념은 결부되어 있다. 기술에 의해 인간은 유능한 인간이 되며, 경제적 생산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직능의 원리는 각인(各人)이 각각 기술을 몸에 익히고, 유능한 인간이 될 것을 구한다. (중략) 지식을 갖추어 기술적으로 유능한 인간이 되는 것은, 각인이 역할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사회에 대해 가지는 책임이며, 중요한 사회도덕에 속한다.²⁴⁾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능’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술’의 문제와 연결시킨 것은 미키 기요시(三木清)였다. 일제 말기에 그는 총리대신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의 브레인 집단인 쇼와연구회의 문화연구회 우두머리로서, 이론적 지도자가 되어 ‘협동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짓고, 동아협동체의 구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인간사의 여러 다른 영역들을 포섭하여 기술의 의미를 확장하고, 기술 개념을 다면적인 철학적 고찰로 전개하는 데 일조했다.²⁵⁾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술’의 문제는 주관적 의미를 지닌 ‘책임과 도덕’이라는 주제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기술을 지닌 유능한 인간만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기술-주체가 등장하는 소설의 창작을 위시해 기술관료들이 만든 담론에 대한 식민지 문학인의 응답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채만식의 『문학과 전체주의-우선 신체제 공부』는 테크노-과시즘과의 상관성 속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채만식은 이 글의 서두를 “일본방적이 선편(先鞭)을 들어 스포 체도의 기술을 공개한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열고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본래 ‘기술의

24) 三木清·笠信太郎, 『協同主義の經濟論理』, 350-351쪽; 빅터 코쉬만(2014), 앞의 글, 186쪽 재인용.

25) 빅터 코쉬만(2014), 위의 글, 164-177면.

비공개주의'는 “재래의 영리주의적인 자유경쟁”에 의한 “이윤지상의 생산태도”와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태도에서 기인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산업상 우수한 기술의 독점적 비밀주의는 국력을 무한히 소모시킨다. 그러므로 구라파적인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몰락하고, “동아(東亞)의 전역에서 세계 신질서의 일환인 신동아 신질서 건설의 대업이 수행”되고 있는 이때에 인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과거에 국민 개인의 직업행위는 생활비의 획득이 목적이고 근로는 그 수단이었으나, 신체제에서는 정반대로 생활비의 획득이 수단이고 근로가 목적이 된다. 국민들은 근로를 매개로 “국가로 통한 유일한 길을 향해서 제각기 제 직능껏 총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황도적(皇道的)으로 한데 땀어진 일심(一心)국가”를 지향하는 신체제에 문학도 참여해야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채만식이 독자들에게 신체제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의 큰 목적이 “궁극에 가서는 총국민의 목적 즉 국민 전체의 행복과 일치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숙의 ‘배(腹)의 우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우화는 “눈이 발 견한 음식을 손이 운반을 해다가 입이 저작을 해서 일단 위로 들여 보내 가지고 위에서 비로소 몸 공체(公體)에 배합시킨다”는 내용으로²⁶⁾, 국가의 유기체적 성격을 강조해야 할 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등장하였다.

‘배의 우화’를 통해서 신체제의 원리가 설명될 경우 그 ‘유기체적 성격’이 강조될 수 있다. 음식을 먹고 그 영양분을 몸 전체에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서는 눈과 손과 입과 위가 아무런 불화 없이 협력해야 한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전체로서의

26) 채만식, 『문학과 전체주의』, 『삼천리』, 1941, 1.; 『채만식 전집 10』, 창작과비평사, 1989, 226-232면.

몸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대체 불가능한 유기체의 한 부분이기보다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기계 부품에 가까웠다. 실제로 진행된 신체체와 이 우화의 진정한 접점은 각 부분의 유기체적 조화가 아니라 눈의 '보기', 손의 '운반', 입의 '저작(咀嚼)', 위의 '소화'처럼 개인의 개별적인 기능이 국가를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채만식의 이 글은 기술관료들이 이상적인 국가 상태를 설정하고 그 구상을 현실의 힘을 동원해 구체화시키려고 할 때, 그가 식민지 조선의 작가로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조응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근로하는 국민들의 사적 이익은 부정되었다. 그리고 '황도(皇道)'를 통해 국가라는 '공체(公體)' 속으로 국민들을 포섭하는 과정은 일본의 기술관료들이 '신체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세계관과 맞닿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일제 말기에 식민지 조선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테크노-파시즘에 이끌리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자본주의는 부정했지만 근대적 기술이 가져오는 역사의 진보는 긍정했던 리얼리즘 작가들의 이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근대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부정은 '파시즘'과 공유하는 것이었고, 역사의 진보에 대한 선망은 '테크노'에 매혹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의 리얼리즘 작가들이 '파시즘'에 이끌린 이유는 파시즘과 리얼리즘 문학이 공유하는 세계관 때문이었다. 현상적인 분열을 부정하는 파시즘은 개인주의를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로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는 리얼리즘 문학의 지향과 맞물리는 부분이었다. 루카치를 중심으로 리얼리즘 문학이 지향하는 것은 총체성이 사라진 근대에 '총체성'을 회복할 시대의 전

형적인 인물을 그려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리얼리즘 문학은 근대적 자본주의가 인간의 필수적인 전제인 공동체와 조직, 다시 말해 총체성의 기반을 파괴한다는 파시즘의 비판에 공명할 수 있었다.²⁷⁾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유는 파시즘과 근대성이 공유한 ‘기술’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테크노-파시즘은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했지만, 근대의 핵심 원리인 과학적 합리성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 근저에 있었다. 테크노-파시즘의 이론적 구상을 담당했던 기술관료들은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구상 속에 녹아 있는 과학과 기술을 매개로 한 진보에 대한 믿음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거나 그것에 동조했던 리얼리즘 작가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으로 다가왔다.

3. 사회주의자의 죽음과 현재 = 전쟁에 갇힌 시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제가 된 것은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구만이 아니라 제국 일본도 세계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등장하였다. 서구 중심의 일원사관을 넘어서 다원사관을 만들기 위해 ‘세계사의 전환기’라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때의 ‘전환기’란 낡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질서의 몰락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질서의 계단으로 세계사가 비약하려는 시기를 뜻한다.

그런데 낡은 차안(此岸)으로부터 새로운 피안(彼岸)으로 넘어 뛰

27) 김도경, 『근대 초극으로서의 파시즘과 리얼리즘』, 방민호 외, 『파시즘 미학의 본질』, 예유, 2009, 306-310면.

려고 하는 이때에, 아직 세계를 통일할 이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차안의 몰락은 확실하지만 건너뛰어야 할 피안의 세계가 보이지 않았다.²⁸⁾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학적 응답의 일환으로 기존 사회와 그 안에서 중시되던 인간형에 대한 비판과, 전환기의 인간 문제, 신윤리, 신인간형의 탐구²⁹⁾ 등에 대한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기술'의 객관적인 자연법칙과 주관적인 목적의 종합을 모색하는 기술-주체의 문제가 여러 작가들을 통해 부상하였다. 본래 테크노크라시는 기술관료의 지배라는 문제보다는 그들이 표방하는 지배의 방식이 개인의 '생활 영역'에 침투한 미시사회적인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기술의 복합적인 성격과 개인의 생활을 바꾸는 문제가 결합할 때 기술적 합리성을 내면화한 기술-주체³⁰⁾가 부상한다.

일제 말기에 발표된 작품들 속에서 기술-주체가 등장하는 맥락³¹⁾은 그전 세대에 해당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육체적 혹은 상징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였다. 김남천의 소설인 「춤추는 남편」, 「처를 때리고」, 「제퇴선」, 「요지경」 등에 등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전향을 한

28) 김남천, 「소설의 운명」, 『인문평론』, 1940. 11.: 정호웅 편, 『김남천 전집2』, 박이정, 667면.

29) 김남천, 「원리(原理)와 시무(時務)의 말-평론계 상반기 소묘」, 『조광』, 1940. 8.: 정호웅 편, 『김남천 전집2』, 박이정, 632면.

30) 빅터 코쉬만(2014), 위의 글, 177, 196면.

31) 김근배, 「식민지 과학기술을 넘어서-근대 과학기술의 한국적 진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민주주의2』, 정근식 외 편, 책세상, 2012, 187-191쪽

전시 체제로 도입한 일제 말기에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기술 및 기능 인력으로 확대 양성되고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이나 일본인이 운영 하는 기업에 채용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인의 과학기술은 일제의 식민지적 억압과 차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절성과 불균형이 심했다. 조선인들의 과학 기술 진출은 일본인들이 기피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하급 기술, 광산 기술, 측량 기술 등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후에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리고 「경영」과 「맥」 연작에서는 재판정에서 ‘전향’을 선언하고 사회주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로 몸을 돌리는 ‘오시형’이 등장한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사회주의의 ‘포기’를 통해 육체적 죽음이 아닌 상징적 죽음을 맞이한다.

반면에 『사랑의 수족관』의 사회주의자 김광준은 폐병이라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사망한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0년도 전에 그 전쟁을 예견할 만큼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통찰과 혜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여급과의 동거, 폐병의 감염, 가족들과의 소원한 관계 등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기술자 김광호는 형이 젊은 시절에 열정을 다해 추구했던 ‘사회주의’와 그 사상이 목표로 하는 계급혁명을 청년의 ‘센티멘탈리즘’으로 치부한다.³²⁾

그리고 혁명과 사회 개혁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려고 했던 광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작품 속의 시간은 더 이상 미래를 향해 열리지 못한다. 사실 사회주의자인 광준은 타자를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갱신을 지속한 존재였다.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그는 자신과 다르지만 혁명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할 타자를 끌어안았고, 타자들을 자기화하는 프로세서 속에서 미래의 시간, 즉 현재의 시간 너머를 상상했다.

반면에 광준이 죽고 난 후 허무와 냉소, 그리고 회의주의로 점철된 기술-주체 광호가 놓인 시간은 눈앞의 적과 지금 당장 싸워야만 하는 ‘전쟁’의 시간이었다. 생존이 지상과제가 되는 전쟁의 시간 동안 기술-주체들은 과거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으로 이어지지 못하

32) 김 철, 「우울한 형/명량한 동생- 중일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 25집, 2009.

기술-주체가 등장하는 소설은 아니지만 사회주의자 형 세대의 ‘우울함’과 대비되는 동생 세대의 ‘명량함’은 정비석의 「삼대」, 백철의 「전망」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 현재의 시간성 속에 갇히게 된다. 전쟁을 위한 기간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광호의 삶의 방식은 기계의 핵심부품인 톱니바퀴가 계속해서 제자리를 도는 것처럼 역사의 큰 흐름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현재의 시간만을 반복 재생할 뿐이다.

그런데 기술-주체가 등장하는 작품들 속에서 현재의 시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인조연료’들에 대한 서술에서 찾을 수 있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천연연료는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지는 반면, 인조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연료가 생성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미 채광한 석탄을 가지고 인조석유³³⁾를 만들거나 나무를 태워서 목탄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용연료’의 제작 등은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한 연료를 인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과거라는 시간과 단절된 채 현재의 시간성만을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인조석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광호는 현재의 시간 속에 갇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 속에 과학기술의 합리성이 녹아들어 있는 광호는 만주로 건너간 후 철도를 놓고,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에 몰두한다. 이런 광호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전시에 석유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액화석유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더욱 강조된다. 연인인 경희에게 자신이 작업하는 방법과 그 가치를 적어 보내는 광호의 머릿속에는 전쟁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과학은 전쟁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길림성 인조석유 주식회사는 석탄을 액화하여 석유를 만드

33) 제니스 미무라(2015), 앞의 책, 263면.

일본 지도자들은 인조석유에 관한 최첨단 연구를 독일에 팔아버렸고, 독일에서 그 연구가 신속하게 응용되어 군수 생산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후에 테크노라이트들은 이 사실을 회상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는 회사입니다. “명일의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명일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다.” 그러나 석유의 막대한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상에 있어서는, 액체연료자급책의 확립이야말로 각하의 급무일시다. 이 대책으로서는 석유유전의 개발, “오일·셀”의 액화, 천연가스의 이용, 전분이나 기타 탄수화물의 “알콜”화 석탄의 액화 등을 들 수 있는데 마지막 석탄액화의 방법이야말로 원료나 기술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석탄액화의 방법은 오늘 그 두 종류가 십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공업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직접액화법과 합성법의 두개입니다. 유래로 인조석유제조법 중 석탄 직접 액화법은 대단히 곤란한 기술로 되어 있는데 만주에서 나는 역청탄 같은 것은 갈탄의 경우와도 달라서 액화공업화는 전혀 절망시 되었었으나 과거 십년 동안 해군과 만철의 협력과 심의 결과 드디어 과학은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일본질소(日本窒素)는 여기에 착안하여 북조선 아오지(阿吾地)에 이것을 위한 회사를 창립하고 그 후 만주에까지 진출을 보게 된 것입니다.³⁴⁾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믿음이 등장할 정도로 변한 세상 속에서 기계와 기술-주체들의 위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래서 해방이 가까워질수록 소설 속에서 인조연료를 만드는 작업은 “국책적 사업” 혹은 “나라를 위한 사업”으로 설명되고³⁵⁾, 작가들은 광산촌을 다루는 생산소설들에서 광산 노동자들의 모습보다는 장엄하고 “과학적인 기계설비”에 대한 묘사와 ‘자연의 힘’이 지닌 허무함과 대비되는 ‘사람의 힘’과 ‘기계의 힘’에 대한 서술을 늘려 나간다.³⁶⁾ 그러한 묘사 뒤에는 단순 노동자들이 하지 못한 작업을 완성하면서 자연을 변형하고 착취하

34)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인문사, 1940, 483-484면.

35) 최인욱, 『멧돼지와 木炭』, 『춘추』, 1942.12., 173면.

36) 석인해, 『歸去來』, 『춘추』, 1943.6., 151, 154면.

는 기계의 힘과 그러한 기계를 만든 과학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주체에 대한 예찬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기술-주체들은 사회주의자들처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괴의 시간, 즉 전쟁을 지원해야만 하는 현재의 시간에 갇히게 된다.

4. 기술-주체의 욕망 소거와 기술 ‘속’ 인간

기술을 매개로 제국의 담론인 ‘테크노-파시즘’과 조선 문단의 ‘전환기’ 논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개인주의와 왜곡된 인간성을 소탕하는 작업에 주목해야 한다. 이 시기 리얼리즘 작가들은 실제 기술자들의 생활, 행동, 심리 등을 관찰하여 기술의 방식을 체화하고 있는 완미한 인간성을 찾아낸 후³⁷⁾, 문학적 가공을 거쳐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기술-주체를 창조하였다. 당대에 『사랑의 수족관』의 김광호로 대변되는 기술-주체의 형상화는 ‘치기 어린’ 『무정』의 이형식이나 『고향』의 김희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강한 육체와 고등교육의 이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자라는 직업,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두기, 그리고 감정이 제거된 냉철함 등으로 인해 이들은 최고의 신랑감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³⁸⁾

그런데 ‘기술-주체’의 형상은 후대에 비자발적이긴 했지만, 일제에

37) 김남천, 「전환기와 작가-문단과 신체제」, 『조광』, 1941. 1.; 정호웅 편, 『김남천 전집2』, 박이정, 689면.

38) 채만식, 「김남천(金南天) 저 『사랑의 수족관(水族館)』 평(評)」, 『채만식 전집 10』, 창작과비평사, 1989, 248-249면.

협력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욕망과 감정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에서 사이보그³⁹⁾로 불리기도 했고, 직분의 윤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제국적 주체’⁴⁰⁾로 명명되기도 했으며, 본인들은 가치중립성을 내세웠지만 이미 파시즘으로 편향되어 버린 권력장 속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주체⁴¹⁾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평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대와 연동하는 주체를 생산하려는 리얼리즘 작가들의 욕망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파시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제국 일본에서 진행되는 ‘신체제’가 지닌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도, 서구의 파시즘을 바라볼 때보다는 좀 더 관대한 시선을 유지했다. 이러한 모습은 파시즘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뿐 아니라, 파시즘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파시즘의 강력한 흡인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기술이 문화를 선도하던 시기에 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진 파시즘은 거부의 대상이보다는 삶의 주요한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테크노-파시즘이 진행되던 시기에 소설에서 재현되는 기술-주체들의 내면은 직간접적으로 국책과 연동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기술-주체들은 개인적인 욕망이 소거된 상태에서 공익을 추구한다. 자신만의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욕망에서 파생되는 고유한 삶의 방식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 시기에 창작된

39) 소영현(2010), 앞의 글.

한민주(2012), 앞의 논문.

40) 정종현, 『1940년대 전반기 이기영 소설의 제국적 주체성 연구 : 『동천홍』, 『광산촌』, 『생활의 윤리』, 『치너지』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화회, 『한국근대문학연구』, Vol.7 No.1, 2006, 1-19면.

41) 황지영, 『식민지 말기 소설의 권력담론 연구 : 이기영·한설야·김남천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여러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술-주체들의 모습과 성격이 매우 유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윤세중은 자신이 ‘구미’에 다니면서 직접 ‘백무선 개선공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백무선(白茂線)』⁴²⁾을 창작하였다.⁴³⁾ 작가의 실제 경험을 소설화한 덕분에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풍경에 대한 묘사나 등장인물들의 심리, 공사현장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에서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백무선』은 『인문평론』의 현상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원래는 작품 전체가 연재될 계획이었으나, 『인문평론』이 폐간되면서 완결을 보지 못한 채 4회만 연재되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박달’이라는 측량기사인데, 그는 전문학교를 나온 인재로 백무선 공사 현장에서 측량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박달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귀한 집에서 자라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백무선 공사를 시작하기 전 ‘기공식’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양복을 입거나 이발을 하는 등 외양을 꾸미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박달은 일할 때도 늘 입는 국방색 ‘국민복’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입고 기공식에 참석한다. 박달의 차림을 보고 측량조수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는 옷이란 깨끗하면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개인적인 욕망이 소거된 소설 속 기술-주체들의 내면은 너무나 단선적이어서 천편일률적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김남천의 『길우에서』에 등장하는 ‘나’는 친구의 사촌동생인 K기사의 책 상자 속에 들어있는 책들을 보고, 그 책들의 내용을 연결하여 기술-주체의 내면세계를 엿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과거에 사회주의

42) 윤세중, 『백무선』, 『인문평론』, 1940.11~1941.3. (4회 연재, 미완).

43) 윤세중, 『『백무선』을 쓰고』, 『인문평론』, 1940.11, 40면.

운동을 했으며 증층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나'가 대중잡지와 기술 관련 서적, 문학 작품에서 수학 서적까지 질서 정연하게 꽂혀 있는 책들을 코드화하여, 책 주인인 기술-주체의 내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떤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K기사가 어떤 지향도 없이 여기(餘技)로써 책들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⁴⁴⁾

이처럼 욕망이 제거된 상태로 단선적인 내면을 지닌 기술-주체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이북명의 『빙원(氷原)』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저수지에 부임한 최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주체이다. 하지만 이런 그의 한 가지 약점은 몸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S저수지로 오면서 “조제한 약 외에, 부속병원에 가서 위산 노-싱, 아스피린, 가제 피링, 요-도흙, 기침약 등을 마련하고 그밖에 또 한약국에 가서 보 폐탕 패독산 등을 지어 트렁크 밑에”⁴⁵⁾ 넣어 가지고 온다.

체온계까지 챙겨온 최호에게 자신이 먹는 약이 조제약이든 판매 약이든, 혹은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어떤 약이 자신의 몸에 더 이로운지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몸이 아플 때는 한 번에 열다섯 알의 약을 한꺼번에 먹을 만큼 약이란 자신의 병을 기능적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약은 자신이 기술을 발휘해서 국책을 실현해야 할 때 필요한 자기 관리의 수단 정도밖에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런 사유체계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면 최호에게는 약뿐만 아니라 약으로 다스려야 하는 자신의 몸 역시 공익을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⁶⁾

44) 김남천, 『길우에서』, 『문장』, 1939.7.

45) 이북명, 『氷原』, 『춘추』, 1942.7, 173면.

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술-주체들의 문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대할 때도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길우에서』의 K기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면, 인부들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부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회사 측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중상을 입을 경우 그 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망을 할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망 위자료만을 지급하면 된다.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최선’ 속에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은 들어있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K기사는 자신의 사고 체계를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적인’ 휴머니즘은 타인의 고통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기 기술-주체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백무선』의 박달, 『병원』의 최호, 『길우에서』의 K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테크노-파시즘 시기에 나타난 ‘기술’과 ‘주체’의 역전 현상이다. 인간들은 스스로가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라고 확신하지만, 이 시기의 소설 속에서는 인간이 기술 혹은 기계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제 ‘기술-주체’는 ‘기술을 지닌 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방식)로 작동하는 주체’까지를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 시기의 기술-주체들은 기술이 인간을

46)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옥 역, 한길사, 2006.

이러한 인간형은 관료제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파시즘적 상황 속에서 심심치 않게 출현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나 아렌트가 재판 기록을 쓴 ‘아이히만’을 들 수 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아이히만이 보여준 행위는 ‘냉정’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영혼-없음’ 혹은 ‘상상력-없음’의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자신의 직무에 기능적으로 임한다. 그에게 총통의 말은 법률의 힘을 지니고, 자신은 그 법률에 복종만 하면 되는 관료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기능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파시즘기의 관료제 속에서 기능만이 전부인 인간이 출현한다.

주조하는 주요 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말해 ‘기술 ‘속’ 인간’이 탄생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 전쟁의 종결과 기계적 윤리의 쇠퇴

후대에 평가된 것처럼 일제 말기에 등장했던 테크노-파시즘은 장기적인 제도의 발전과 역사적 과열의 부산물이었다. 이것의 기원은 전쟁기에 벌어진 자본주의의 위기와 현대 과학기술이 만든 새로운 기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있었다. 테크노-파시즘의 정치적·개념적 전략들은 우선적인 국가 기획의 도입과 국가 주도 산업합리화의 추진, 그리고 만주국 건국 등으로 구체화되었다.⁴⁷⁾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후에 미국의 기술들이 유입될 때, 그것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테크노-파시즘이 일정 부분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테크노-파시즘이라는 권력의 효과로 등장했던 기술-주체들은 해방을 맞이한 후에 현실 속에서는 그 명맥을 이어갔지만,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전 같이 자부심을 지닌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가 원하는 ‘진리’ 역시 바뀐다. “자연을 정복하는 기술자의 위대한 정신”과 국가를 위한 “위대한 건설”을 외치던⁴⁸⁾ 기술-주체들이 문학 속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 말기가 테크노-파시즘의 자장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이 보여주었던 도구적 합리성과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계적 윤리는, 작가적 이상을 담아 시대의 모순과 대결해야 하는 문학 속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었다.

47) 제니스 미무라, 앞의 책, 15, 325면.

48) 이복명, 『氷原』, 『춘추』, 1942.7, 171, 184면.

일제 말기의 기술-주체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예속화’를 동반한 주체였다.⁴⁹⁾ 가치중립을 표방하는 기술-주체들은 자신들의 자율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으나, 그들은 고유한 삶의 영역이나 특이점, 그것도 아니면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이타적 영혼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기에 등장한 테크노-파시즘과 그 권력이 행사하는 지배력 안에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부품처럼 기능할 위험이 있었다.

안함광은 일제 말기의 문학을 평가하면서 “시대정신(時代精神)의 분열(分裂)을 분열(分裂)된 채로, 현대의식(現代意識)의 갈등(葛藤)을 갈등(葛藤)된 채로, 반영격투(反映格鬪)하는 정신(精神)을 소유(所有)할 필요(必要)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문학정신(文學精神)은 시대(時代)의 분열(分裂)”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황금(黃金)의 임금(林檎)’을 “작위적(作爲的)인 조화(調和)의 포장(包裝)으로 싸버리려”고 하였다.⁵⁰⁾ 안함광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일제 말기의 시대적 분열을 작위적인 조화로 포장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기술-주체의 형상이었다.

테크노에 대한 동경과 파시즘에 대한 거부가 공존하던 시기에 리얼리즘 작가들은 테크노-파시즘에 대해 순응과 길항 사이를 오가면서 기술-주체라는 문제적 주체를 만들어냈다. 이 주체는 일제 말기에 기술 자체가 파시즘을 작동시키는 원리였고, 기술이 파시즘을 발판 삼아 발전하고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기술-주체라는 ‘작위’는 기술과 파시즘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작가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생긴

49)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60면.

푸코가 ‘주체화’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예속화’라는 개념이 이 맥락에서는 주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권력의 효과로 나타나는 주체는 항상 예속화를 동반한다.

50) 안함광(1939), 앞의 글.

균열과 틈새를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기술-주체들은 해방 후에도 국가를 재건하는 중추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갔다. 하지만 해방 후의 소설 속에서 기술-주체의 형상은 등장 횟수도 적을 뿐 아니라 등장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김남천은 『1945년 8·15』에서 해방 후에 기술자 김광호가 재벌가의 사위가 되어, 피로에 지치고 더욱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7장 영원한 비판자’에서 일제 말기에는 냉철하고 이지적이었던 김광호에 대해 “피곤하면 신경질이 더해서 그럴 때마다 가족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정도는 아니나 뽀로통한 채 남의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도 않는”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지금 이신국과 그의 아들이 시작하려는 정치적 활동을 반대하면서, 사업장으로 “신념도 없이 기계적으로 내왕하고 출입하고 있을 뿐”이다. 해방 후 경희의 눈에 비친 광호의 외양은 여전히 아름다우나, 해방과 함께 그 아름다움에도 어떤 ‘운명적인 면모’가 드리우기 시작한다.⁵¹⁾ 일제라는 억압에서 벗어나고 ‘빛을 다시’ 찾은 해방 후에 요구되는 것은 새롭게 자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과학기술계가 목표로 삼은 것은 “과학 조선의 건설”이었다.⁵²⁾ 이런 시기에 요구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진취적인 주체였다. 그래서 기계적 삶과 윤리에 침윤된 테크노-파시즘기의 기술-주체는 더 이상 한반도의 문학 공간 속에서 각광 받을 수 없었다.

51) 김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7장.

52) 김근배(2012), 앞의 책, 195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남천, 『길우에서』, 『문장』, 1939.7.
 ——, 『사랑의 수족관』, 인문사, 1940. (『조선일보』, 1939.8.1.~1940.3.3.)
 ——, 『김남천 전집 1,2』, 정호웅 편, 박이정, 2000.
 석인해, 『歸去來』, 『춘추』, 1943.6.
 윤세중, 『白茂線』, 『인문평론』, 1940.11., 1941.1., 1941.3., 1941.4.
 이복명, 『氷原』, 『춘추』, 1942.7.
 최인욱, 『뱃돼지와 木炭』, 『춘추』, 1942.12.

2. 논문

- 공임순, 『식민지 시대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형상 연구 : 김남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Vol.7 No.1, 2006, 199-226면.
 김병관, 『日帝下 朝鮮人技術者の 形成過程과 存在樣態』,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김 철, 『우울한 형/명량한 동생- 중일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회, 『상허학보』 25집, 2009, 153-191면.
 류수연, 『기술자와 직업서사-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집, 2016, 157-179면.
 서영인, 『일제 말기 생산소설 연구- 강요된 국책과 생활현장의 리얼리티』,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41, 2011, 145-176면.
 이경제, 『일제말기 생산소설의 정치적 성격 연구』,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Vol.29, 2010, 201-230면.
 이병례,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원동, 『이기영의 생산소설 연구- 『동천홍』, 『광산춘』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2004, 393-416면.
 전상숙, 『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동방학지』 제124집, 2004, 607-657면.
- 정중현, 「1940년대 전반기 이기영 소설의 제국적 주체성 연구 : 『동천홍』, 『광산춘』, 『생활의 윤리』, 『처녀지』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Vol.7 No.1, 2006, 1-19면.
- 정하늬, 「‘신시대’ 과학기술·과학기술자의 표상— 이광수의 사랑 과 이복명의 빙원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7집, 2016, 337-360면.
-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의 문학적 수용」,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2003, 197-221면.
- , 「일제말기 생산소설 연구」,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42, 2008, 331-362면.
- 차승기, 「전시체제기 기술적 이성 비판」, 상허학회, 『상허학보』 23, 2008, 11-31면.
- , 「문학이라는 장치- 식민지/제국 체제와 일제말기 문학장의 성격」,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 44집, 2011, 179-209면.
- , 「비상시(非常時)의 문/범- 식민지 전시(戰時) 레짐과 문학」,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間SAI』 vol.12, 2012, 9-41면.
- 함동주, 「中日戰爭과 미키 키요시(三木清)의 東亞協同體論」, 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 56, 1996, 157-188면.
- 황중연, 「기술 이성의 관념론」, 동악어문학회, 『동악어문학』 Vol.73, 2017.11, 9-55면.
- 황지영, 「식민지 말기 소설의 권력담론 연구 : 이기영·한설야·김남천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Michael Adas, 「The Science of Empire: Scientific Knowledge, Civilization, and Colonial Rule in India by Zaheer Baber」, *Technology and Culture*, Vol. 39 No.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3. 단행본

- 김효신, 『한국 근대문학과 파시즘』, 국학자료원, 2009.
- 나카무라 미즈오, 니시타니 게이치 편, 『태평양전쟁의 사상』, 이경훈 외 3명 역, 이매진, 2007.

- 로버트 O. 팩스틴,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손명희 외 역, 교양인, 2005.
- 마크 네오틀레우스, 『파시즘』, 정준영 역, 이후, 2002.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1994, 60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민주주의2』, 정근식 외 편, 책세상, 2012.
- 방기중,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혜안, 2005.
- , 『식민지 파시즘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 방민호 외, 『파시즘 미학의 본질』, 예옥, 2009.
- 발헬름 라이히, 『파시즘의 대중심리』, 황선길 역, 그린비, 2006.
- 사카이 나오키 외, 『총력전하의 앞과 제도 (1933~1955년)』, 이종호 외 역, 소명출판, 2014.
- 야마모토 요시타카, 『나의 1960년대』, 돌베개, 2017.
- 이상경, 『일제 말기 파시즘에 맞선 혼의 기록』, 역락, 2009.
- 이현식, 『일제 파시즘체제하의 한국 근대문학비평』, 소명출판, 2006.
- 제니스 미무라, 『제국의 기획』, 박성진 역, 소명출판, 2015.
- 최재서, 『訓練と文學』, 『轉換期の朝鮮文學』, 인문사, 1943.
- 한국 타이완 비교문화연구회, 『전쟁이라는 문턱 (총력전하 한국 타이완의 문화 구조)』, 그린비, 2010.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2』, 박미애·이진우 역, 한길사, 2006.
- 한민주, 『낭만의 테러 파시스트 문학과 유토피아적 충동』, 푸른사상, 2008.
- 황호덕, 『벌레와 제국- 식민지말 문학의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 새물결, 2011.
- 후지타 쇼조,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김석근 역, 논형, 2009.
- 히로마쓰 와타루, 『근대초극론』, 김향 역, 민음사, 2003.
- 三木清, 『三木清 全集 第7巻 : 哲學入門 技術哲學 他』, 岩波書店, 1985.
- 鶴岡哲, 『応答する力- 来るべき言葉たちへ』, 青土社, 2003.
- 池田浩士, 『石炭の文學史』,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Formulation of
Techno-Fascism
—In the End of Japanese Novels
Focused on the Ethics of the
technology-subject—

Hwang, Ji-Young

In a realism novel made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echnology-subject are emerging that can define this era as ‘techno-fascism’. As the war became prolonged, technology-subject began to receive excellent evaluations. And they accepted without criticism the discourse created by the technocrats of Imperial Japan. They appreciate the excellence of technology and lead a faithful life in their spiritless profession. But like socialists, they did not dream of a new world. Instead, they are trapped in the current time when they have to support the ongoing war. They also eradicate individual needs by functionally performing the values society demands. After the war, we had to build a new nation through free and enthusiastic subjects. In this gap, the ethics of the technology subject focused on functionalism can no longer be used.

Key words: Techno-fascism, technocracy, technocrat,
technology-subject, Mechanical ethics, production novels

투 고 일 : 2019년 2월 11일 심 사 일 : 2019년 2월 25일-3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9년 3월 27일